

## 수원수구(誰怨誰咎)

### Negative System & Positive System

한창진 / (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n Chang-Jin

신문의 시사만화나 시사만평을 보고 기사를 읽는다. 그래도 막힌 언론이 이만큼 트였다는게 다행스럽다. 그러나 요즘의 사태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나. 그리고 누가 이것을 속 시원히 밝혀주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국민 모두에게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할게 아닌가? 국민은 그것을 알권리도 있고 알아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걱정스러우며 불안을 금치 못한다.

문민정부의 정치행태를 보여준 “노동법 날치기 통과”,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부패의 본모습을 보여준 “한보사건”은 우리를 망연자실케 하기에 충분했고 “현철사건”은 뭐라고 하면 좋은가? 어처구니 없다가 보다는 서글프다.

우리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통치능력도 위기관리능력도 의심스럽다. 경제권도 정치권도 행정능력도 행정부의 모든 제도조차도 믿을 수 없고 믿으려하지 않는 국민의 무너진 신뢰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서강대 L교수의 신문 칼럼기사 내용은 오늘을 실감케 한다. 「무정견, 무지, 무능, 무책임의 지도자를 만나면 순식간에 사기를 잃고 혼란속에 빠져든다고 알려주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4무(無)중에서도 무책임이 제일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는 가히 혁명적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지도자도 없고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조직도 없으며 모든 국민이 존중하는 기강마저 무너졌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있는가.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는가. 당수들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인형” 외에 정치인들이 있는가. 권력, 금력의 시녀로 전락한 공무원들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더욱 절실한 충격을 던져준 한 기업인의 호소가 있다.

「뇌물 안 주면 기업 못한다.」

수출현장, 경찰관서, 특허청, 세무서, 소방서 등 어느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는 호소하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허구한날 우리는 정쟁에, 파업에, 뇌물에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고 질책했다.

어이가 없는 일들, 백번 공감하고 동조한다.

존지받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잘못하고 당해온 것이 사실이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쯤으로 여기게끔 길들여져 온 터이다.

말하자면 피해자인 동시에 부정부패의 방조자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글픈 일이지만 이 모든 기정사실을 모두 인정해야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나라를 이 꼴로 전락시킨 원흉들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지탄하면서 흥분하고 핏발을 세우고 분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온다. 군사독재도, 무능한 문민정부도 우리가 만든 정부임이 틀림없고 옥살이하고 있는 대통령들도 문민대통령도, 어김없이 우리가 선출해서 내세운 대통령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대통령이 4년동안 스물여덟번이나 개각을 하고 100명이 넘는 장관을 교체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오늘임을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누구를 탓하면 되나? 누구를 원망하면 되나?

누가 책임을 지고 말고도 없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 스스로가 가슴을 처야할 수 밖에. 권력은 대통령의 점유

물도 아니고 관료나 고관대작의 소유물도 아니다. 하물며 그들의 수하나 가족의 것은 더욱 아니잖는가. 국민 스스로가 그 권력을 그들이 휘두르게 방지했을 뿐이다.

의롭고 용감한 기업인 이영수씨가 외친말처럼 “우리 모두 정신 좀 차리자.”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처지는 우리 건축계 또한 마찬가지다.

요 몇년사이 몇가지 사건 이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누가 건축계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나. 누구 책임이냐”. 그렇게 똑같이 울분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조건반사적으로 파생된 법과 규제와 국면전환용 조치사항들은 건축계의 지각변동을 야기시켰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게 했다.

-삼풍사건이 감리부실 때문일까, 으뜸가는 부실은 발주부실과 관리부실일게다. -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술집단의 농간은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을 낳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감리협회를 탄생시키면서 건축사협회에 금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설계의 연장선상의 감리업무를 앗아간 그들과 한건연(한국건설업체연합회)은 설계까지도 스스로 하겠다고 노리고 있고 힘의 논리상 약한자가 버티기 어려운 처지임을 생각하다 보면 사협의 공중분해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상이다.

이토록 한심할 수가 있다. 30년 넘게 공공거리며 못살게 되어있는 구조 속에서 온갖 수모와 가난을 이겨온 우리가 이룩해놓은 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코 닦아주고 뺨맞은 격으로 건축계의 불신은 우리만 한몸으로 받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 또한 누구 탓도 아닌 우리 탓이다.

자의식만을 내세우는 모래알 집단.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이기주의자들.

대아(大我)보다는 소아(小我)를 택하는 소인배 무리.

체질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알레르기 증환자들.

무관심과 오불관주의자들.

아마도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류가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싶다. 결국 우리가 현명하지 못했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건축 몇단체인지 모르게 많아졌지만 적어도 건축3단체만이라도 종을 가리지 말고 횡으로 대화하고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누가 우리 건축인들을 깔볼 수 있었고 불신할 수 있었겠나. 오늘과 같은 수모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겸허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이 파국에서 벗어날 공리를 해야 할 때다.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뭔가 변혁이 요구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이 총체적 부실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뿐이다.

의식의 개혁, 체질의 개혁으로 자기 갱신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공동체 속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일이다.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방위해야 할 직능의 확립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살아왔다. 모두 한길은 걷는 동료들의 갈등에 의해서 찢기고 할켄 상처와 주위의 냉대와 불신만을 키워 온 과거를 자성해야 한다. 진지하게 실천가능한 개혁연구의 지속을 촉구한다.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걸었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언로가 막혀서는 안된다. 부단히 대화를 넓히다 보면 공약수와 공통분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풀어주고 고쳐주길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로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할 시기의 도례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즈음에 우리 손으로 개혁백서라도 작성해서 제시할만도 하지 않을까. 새내각이 들어서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1만1천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혁에는 “부정적 개혁”과 “적극적 개혁”이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정적 개혁(Negative System)과 자유원칙아래 규제만 예외로 하는 적극적 개혁(Positive System)을 말하는데 과감하게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 개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규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만을 설정하고 그외는 모두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서 접근의 가닥이 잡힐지도 모른다. 서류절차 간소화, 차원이 아닌 핵심 규제의 혁파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